

재가집의 관점에서 바라본 오구굿의 의미

홍 태 한*

<차 례>

1. 서론
2. 오구굿의 구조
3. 오구굿 사례를 통해 본 재가집의 굿판 참여 방식
4. 재가집의 관점에서 본 오구굿의 의미
5. 결론

1. 서론

오구굿¹⁾은 죽은 이를 저승으로 천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굿으로, 많은 굿이 소멸되고 있는 지금이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진행되는 굿이다. 새남굿, 진오귀굿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진 오구굿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한국 문화 전승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오구굿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각 거리별 의미 및 구조, 연극적 구조 등이 밝혀져 있으며,²⁾ 상당한 자료가 조사 보고되었다.³⁾ 특히 오구굿

* 洪泰漢(Hong Tea-han)

경희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 강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 대학원 졸. 문학박사. 주요 저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인물 전설의 현실인식』 외 다수.

1) 이 글에서는 서울 지역의 오기굿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오기굿, 새남굿이라고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죽은 이를 천도하는 굿 중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굿의 명칭이 오구굿이어서 오구굿으로 사용한다. 또 필요에 따라 망자천도굿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한다. 물론 이 용어는 굿판에서 불리는 용어는 아니나, 굿의 성격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말이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2) 오구굿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중 주목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김태곤, 1981, 『무속의 실태』, 『한국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② 조홍윤, 1997, 『무와 죽음』, 『한국 무의 세계』, 서울 : 민족사.

③ 정병호, 1989, 『굿판에 표현된 한과 신명』, 『한국의 굿 14-통영오귀새남굿』, 서울 : 열화당.

④ 최종성, 1995, 『진오귀굿 천도 제차의 연속성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

에서 구송되는 바리공주는 한국 서사무가를 대표하는 무가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고⁴⁾ 가장 주목을 받은 서사무가로서 전국적인 전승 양상 및 변이, 형성과 발전 양상, 구송 원리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등장하고 있다.⁵⁾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오구굿이 가지는 의미를 재가집을 중심으로 규명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오구굿이 주로 연행을 담당하는 무당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향이 있으며, 아울러 각 제차별 의미, 구송되는 신화에 집중된 바가 있다. 물론 굿판이라는 것이 무당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굿의 제차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오구굿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가집도 굿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가집은 주지하다시피, 굿판을 성립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굿판의 진행에 무당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가집의 요청으로 인해 굿판이 열리고, 재가집의 의도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무당은 굿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빈약하다.⁶⁾ 무당과 굿 자체에 대한 연구가 오구굿의 본질을 규명하는 연구임에는 틀림없으나 굿판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재가집 입장에서 오구굿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오구굿의 기본 구조를 고찰한 후 각 제차별 의미를 바탕으로 오구굿의 진행 양상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구굿의 왜 지금도 연행되고 있는지

학위논문.

- ⑤ 홍태한, 1997, 『오구굿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보 8』, 서울 : 한국민속학회.
- ⑥ 홍태한, 1999, 『오구굿과 심청굿을 통해 본 굿거리의 변화』, 『한국무속학 1』, 서울 : 한국무속학회.
- ⑦ 홍태한, 1999, 『서울 오구굿의 두 계통』,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 3) 오구굿을 조사 보고한 자료로 다음 것이 주목된다. 조홍윤 글·김수남 사진, 1993, 『서울 진오기 굿』, 서울 : 열화당 ; 김태곤, 1982, 『한국무속도록』, 서울 : 집문당.
- 4) 그 동안 이루어진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김대진, 1988, 『바리데기 무가 연구』, 서울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② 노영근, 1993,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서울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③ 서대석, 1980, 『바리공주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서울 : 문학사상사.
 - ④ 이경하, 1997,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 서울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⑤ 이현숙, 1994, 『바리공주 무가 연구』, 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⑥ 장석환, 1991, 『바리공주 무가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오구굿에서 연행되는 바리공주는 그 동안 채록 조사된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홍태한 외, 1997,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2』, 서울 : 민속원. 이를 바탕으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반에 관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홍태한, 1998,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서울 : 민속원.
- 6) 재가집에 관심을 가진 연구 성과는 찾기가 어렵다. 차옥송이 굿판에 참가한 가족들의 경험을 정리해 놓은 것이 유일하여서 유용한 자료가 된다. 차옥송, 1997, 『한국인의 종교 경험-무교』, 서울 : 서광사, 237-239쪽.

를 재가집의 입장에서 규명하기로 한다. 자료로는 필자가 그동안 참가 조사한 자료를 주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조사 보고된 오구굿 자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겠다. 필자는 오구굿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관찰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굿판에서는 제차에 따라 무가 사설을 채록하고 실상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촬영했다. 아울러 각 거리가 끝날 때마다 재가집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변화를 파악하면서 굿판에 대한 기대 심리와 실제 얻은 효과를 기록했다. 아울러 각 거리가 진행될 때 재가집이 보이는 반응도 세심하게 살펴서 기록했다. 이러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오구굿에 참가한 재가집의 심리변화와 오구굿이 재가집에 주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구굿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재가집의 측면에서 규명되기를 희망한다.

2. 오구굿의 구조

굿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지역적 분포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며, 굿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성격이 같은 굿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무당에 따라서 굿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한다.⁷⁾

사람들이 무당에게 굿을 의뢰한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이다. 자신에게 닥쳐온 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굿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죽은 이를 저승으로 천도시키기 위해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굿판을 벌이고 굿이 시작되면 반드시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당은 노력하게 된다.

굿을 하게 되면은 굿을 신에게 바치는 존재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 존재는 대부분의 경우가 인간으로, 기원을 받는 대상인 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굿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굿을 신에게 바치는 존재에 따라 굿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굿을 바치는 존재는 굿을 행하는 목적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굿을 바치는 존재가 죽은 이라면, 그 굿의 목적은 신에게 굿을 바침으로써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무사히 천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될 것이고, 굿을 바치는 존재가 마을 사람이라면 그 굿은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것이 된다.

7) 이러한 것은 무속 조사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무가 사설을 채록하여 확인할 때도 그냥 그렇게 배워서 그렇다는 반응이 있기가 일쑤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관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무당도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것은 무속이 살아 있는 민속 현상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굿은 굿을 바치는 존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 1) 무당 자신인 경우
- 2) 무당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

무당 자신이 굿을 바치는 경우는 신에게 굿을 바치는 존재가 굿을 행하는 무당 자신과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무당이 필요에 의해서 굿을 열어서 신에게 자기의 품은 뜻을 알리는 것으로 내림굿이 대표적이다. 처음으로 무당이 되기 위해 입사식으로 시행하는 내림굿은 무당 자신이 권능 있는 무당이 됨을 신에게 고하는 굿이다. 또한 무당 자신이 몸주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단풍맞이굿, 꽃맞이굿도 성격이 같다.

이외의 굿은 모두 무당이 아닌 일반인들이 굿을 바치는 경우로서 그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굿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소하여 미래에 대한 평안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굿은 굿관의 참가자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2-1) 가족 단위의 굿
 - 2-1-1)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굿
 - 2-1-2) 죽은 사람을 위한 굿
 - 2-2) 마을 공동체 단위의 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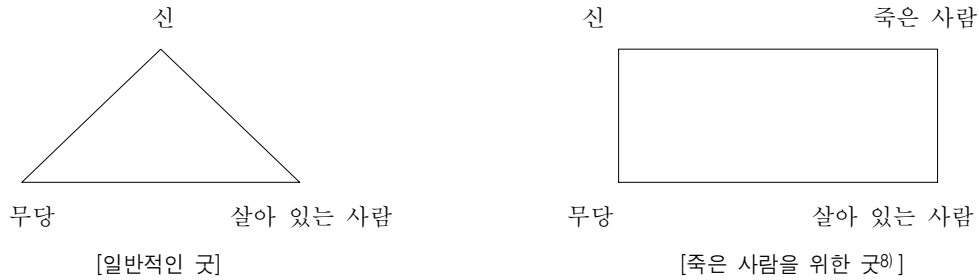
가족 단위의 굿은 재수굿이나 오구굿처럼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행하는 굿이고 마을 공동체 단위의 굿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굿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은 살아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평안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굿으로서 재수굿, 병굿이 대표적이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재수굿과 병자를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병굿은 모두 굿을 바치는 존재와 굿을 행하는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굿에는 망자천도굿이 대표적이다. 지역에 따라 오구굿, 씻김굿, 다리굿, 망목굿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이 망자천도굿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천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굿이다. 마을을 위한 굿은 도당굿, 별신굿 등의 마을굿이 대표적으로서 서낭당, 산신당 등지에서 집단제례를 행한 후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벌어지는 굿이다.

이러한 굿에는 모두 신과 인간 그리고 중간 존재로서 무당이 개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소망을 회구하는 인간, 이러한 인간의 기원을 들어주며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신, 중간존재로서 신과 인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무당은 굿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굿 중에서 가장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죽은이를 위한 망자천도굿이다. 무당 자신이 바치는 굿이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에서는 굿을 받는 존재인 신과 굿을 바치는 존재인 살아 있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서 신과 인간세계의 다리 역할을 하는 무당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망자천도굿에서는 굿을 행하는 목적과 굿을 바치는 존재 사이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굿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두 개입함으로써 굿판의 양상은 다른 굿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굿의 종류		굿을 받는 존재	굿을 바치는 존재	굿의 목적
무당자신을 위한 굿		신	무당	무당의 욕구 충족
가족 단위의 굿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굿	신	살아 있는 사람	살아 있는 사람의 욕구 충족
	죽은 사람을 위한 굿	신	살아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의 천도
마을 공동체 단위의 굿		신	집단	집단의 욕구 충족

대개의 굿들은 굿을 바치는 존재, 곧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굿을 행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한 굿에서는 굿을 바치는 존재와 굿을 행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다. 무당 자신을 위한 굿,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 마을 공동체 단위의 굿에서는 굿을 바치는 존재와 굿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하려는 대상이 일치한다. 그러나 죽은 이를 천도하는 굿에서는 굿을 바치는 존재와, 굿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하려는 대상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성격적인 차이는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이 된다.

일반적인 굿이 삼각 구조 속에 진행된다면 죽은 사람을 위한 굿에서는 사각 구조 속에 진행된다. 무당은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서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기원하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굿의 모습이다. 반면에 신에게 죽은 사람의 천도를 기원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한까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무당을 보여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위한 굿이다.



따라서 망자천도굿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된다. 죽은 사람을 천도시킴과 동시에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심적인 평안감을 주어야 하는 이중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전체적인 망자천도굿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 거리가 행해짐과 아울러 죽은자를 천도시키는 거리가 행해지기도 하는데 이 중 <바리공주>가 구송되는 말미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이다.⁹⁾

서울 지역의 오구굿은 굿판이나 무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¹⁰⁾

(1) 굿판의 정화

주당, 부정 등의 거리가 여기에 속한다. 굿판이 일상 공간과 구분되는 공간임을 제시하며 비로소 신의 길이 열림을 알리고 정화한다.

(2) 망자 혼 부르기

영실 거리가 대표적이다. 무당의 몸에 강신한 망자는 무당의 입을 통해 가족을 만나고 못다 한 이야기를 하며 맺힌 한을 풀다.

-
- 8) 이 도표에서 신과 죽은 사람이 나란히 놓여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나란함이 아니라, 굿판의 구성요소로 죽은 사람이 개입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격으로 보아도 죽은 사람과 신은 나란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 9) 후술하겠지만 망자천도굿에 참가한 재가집이 망자의 천도 과정을 확인하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크게 얻는 거리가 말미거리이다.
- 10) 그 동안 보고된 서울 경기도 지역의 오구굿의 거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다음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서울 배경재-秋葉隆 외, 1992, 『조선무속의 연구』, 서울 : 동문선. 서울 문덕순-김태곤, 1980, 『한국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서울 최명덕-최길성, 1993, 『한국무속지 2』, 서울 : 아세아문화사. 서울 함부전-조홍윤 외, 1993, 『한국의 굿 20-서울 진오기굿』, 서울 : 열화당. 양주 조영자-장주근, 1967, 『경기도 지역무속』, 서울 : 문화재관리국. 인천 정영숙, 인천 도정희-이선주, 1996, 『한국의 굿 2』, 서울 : 민속원.

순서	서울 배경재	서울 문덕순	서울 최명덕	서울 함부전	양주 조영자	인천 정영숙	인천 도정희
1	주당물림	부정	주당물림	주당,부정,청배, 덴주	시앙가망	부정	부정
2	부정	가망	부정	물구가망 물구말명	주디	장군	본향
3	산마누라	말명	본향바래기	초영실	호구	대감	장군
4	별상	상산	불사맞이	조상	말명	창부	대감
5	대감	별상	조상	상산마누라	사재삼성	튼대왕	제석
6	영의	대감	상산	별상	바리공주	말미	성조
7	사자	제석	안제석	신장	시앙가르기	넋보냄	창부
8	말미	호구	성주	원영실	영실	뒷전	튼대왕
9	도량	성주	창부	대감	구능		말미
10	넋전	군웅	튼대왕	창부	구능대감		넋보냄
11	시왕군웅	창부	중디	뒷전	서낭		뒷전
12	뒷전	튼대왕	말미	시왕가망 시왕말명	영산		
13		중디청배	도령	사재삼성	상문		
14		아리말명	뒷전	말미			
15		사재삼성		도령			
16		말미		배째			
17		넋청		상식			
18		넋보냄		뒷영실			
19		뒷전		시왕군웅			
20				진오기뒷전			

(3) 망자 혼 이승에서 보내기

사자, 말미, 도령돌기, 배가르기 거리가 여기에 속한다. 망자의 혼을 데려가기 위해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망자의 혼은 가족과 작별하고 저승으로 떠난다.

(4) 망자와의 거리감 확인하기

마침내 저승으로 떠난 망자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상식, 뒷영실 거리가 여기에 해당하며 말미상 새발심지에 불을 붙인 후 망자의 천도를 확인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5) 현실로의 복귀

뒷전거리를 하여 고향에 온 모든 잡귀들을 풀어 먹이고 재가집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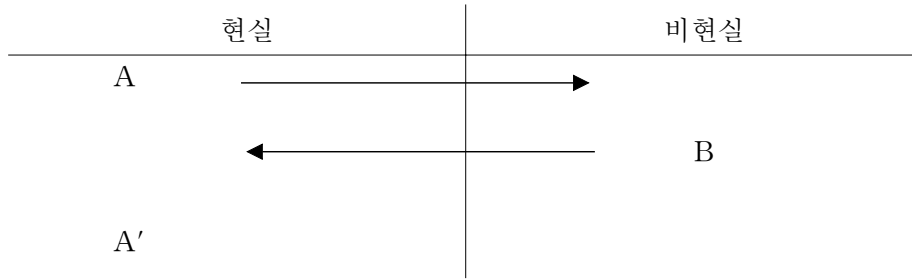
새남굿의 경우는 이보다 앞서 안당사경맞이굿을 하고 망자천도굿을 진행하지만 기본적인 열개는 대동소이하다.¹¹⁾ 이러한 오구굿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된다.

현실		비현실
곳판의 정화	→ 비현실로 들어가기	망자 혼 부르기 망자 혼 이승에서 보내기
	← 망자와의 거리감 확인하기	
현실로의 복귀	← 현실로 돌아오기	

현실에서 망자와의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겪은 재가집은 현실 공간을 정화하여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든 후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망자를 만난다. 그리고 망자와의 설움을 풀 후 다시 저승으로 보내는 일련의 의식을 행한다. 이러한 것은 고향이 현실의 설움을 풀어주는 공간임과 동시에 현실과 비현실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¹²⁾

11) 서울 새남굿 보존회, 1996, 『서울 새남굿 신가집』, 서울 : 문덕사.

12) 여기에서 말하는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기반으로 한 사고는 한국 무속의 원형적 사고로 논고된 원본사고를 가리킨다. 김태곤, 1980, 『한국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9장 참조.



이러한 모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에 존재하는 A는 제약이 있어서 불행에 빠진 모습으로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날 수 없는 공간의 제약을 가진 존재이다. 아직 가슴에 쌓인 한은 풀리지 않았고, 이러한 맺힘으로 인해 고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오구곳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오구곳을 통해 제약을 가진 존재 A는 B로 바뀌게 되고 현실에서 풀 수 없었던 여러 제약을 무당이라는 사제의 조정을 통해 풀 수 있다. 이때의 B는 현실에서의 제약이 풀리고 있는 A를 의미한다. 눈으로 직접 망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당의 표정과 몸짓, 말투를 통해 가족들은 망자를 직접 대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은 아니나 가슴에 쌓인 한이 풀리는 느낌을 갖는다. 고통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존재는 변화하여서 비현실로 가기 전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 모든 것이 풀린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비로소 망자와의 거리감이 확인되고 산 자는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므로 A에서 A'로의 변화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모습의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녀옴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다. 현실에 가졌던 모든 제약들이 해소된 느낌을 가지게되어 현실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에 쌓인 한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오구곳이고 그러한 밑바탕에는 현실에서 비현실로의 순환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오구곳은 현실에서 점차 벗어나 비현실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존재는 현실이라는 동일한 틀에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비현실계에 다녀오기 전과 그 후는 차원이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3. 오구곳 사례를 통해 본 재가집의 고통 참여 방식

1) 오구곳 사례 제시

그동안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 오구굿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굿판에 참가한 무당들을 중심으로 관찰한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재가집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오구굿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관찰 한 오구굿 사례 중 서울의 정통 무당이 주재한 오구굿을 제시한다.

가. 조사일자 : 1998년 3월 3일 오후 19시 - 24시

나. 장소 : 성북구 국민대학교 앞 천신당

다. 조사내용 : 진진오구굿

라. 제보자 : 주무 껌정판장애기(여, 77세)

조무 김영숙(여, 75세) 껌정판장애기를 언니라고 부른다.

조무 유복연(여, 40대) 껌정판장애기의 신딸

악사 한영서 (남, 50대) 피리잡이. 껌정판장애기의 수양아들

마. 재가집 : 망자는 재가집의 딸이다. 재가집은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아들은 이번
에 박사학위를 받고 혼인을 앞두고 있다. 망자(여, 38세)는 가족과 함께
어디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아들(9세)과 함께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
리고 망자의 남편과 딸(12세)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평소 아들에
게만 잘 해 준 것이 걸려서 이번에 굿을 하게되었다고 한다. 오늘은 바로
망자의 삼오날이다. 재가집은 시종 굿이 진행되는 동안 통곡을 했으며,
영실에서는 무당을 부동켜 안고 너무도 슬프게 울었다. 또한 망자의 고모
가 함께 참가하였는데 역시 시종 슬프게 울었다.

바. 주 무 : 주무는 덕물산을 다녀온 경험에 있는 무당으로 7세에 강신한 사람이
다. 서울 지역의 정통무당이나 장성한 자녀들로 인해 자신을 잘 드러
내지 않으려 한다. 자식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정체가 드러나면 자식들에게 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어서 사진 촬영을 금하여 굿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자신의 내력에 대해서도 잘 말해 주지 않아, 서울의 신어머
니에게 정통 굿을 배웠다는 것 이외에는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사. 진진오구굿 절차 및 내용

- ① 주당물림 - 무당이 장구를 명명 쳐서 주당살을 물린다. 이때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굿당 밖으로 나간다.
- ② 부정청배 - 주무가 앉아서 장구를 치며 신령들에게 굿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
름과 생년월일을 알린다.
- ③ 가망청배 - 부정에 이어서 진행이 된다. 역시 주무가 앉아서 장구를 치며 무
가를 구송한다.
- ④ 별상 - 조무가 춤을 추다가 공수를 재가집에게 준다. 재가집을 문앞에 엮드리
게 한 후 오방신장기로 덮은 후 미나리, 두부, 콩나물로 재가집을 씻어주고 사
방에 뿌린다. 북어로 등을 때리고 밖에 던진다. 오곡을 뿌리고 망자의 옷을 밖

으로 던지고 망자의 물건을 모두 밖으로 던진다. 이때 이불 등 망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는데 이들은 나중에 모아서 태운다. 이는 상문을 풀기 위한 것으로 콩나물은 반드시 날콩나물을 쓴다. 등에 덮였던 천을 찢어버리고 술을 입으로 뱉어준다. 그 다음 방에 와서 오방신장기 점을 치고 별비를 걷고 공수를 준다.

- ⑤ 영실 - 망자의 혼령이 오는 거리이다. 망자가 입을 새 옷을 들고 조무가 춤을 추다가 쓰러지자 여럿이 달려들어 일으킨다. 일어난 무당의 몸에 사령이 내리고 재가집과 함께 부들켜 안고 온다. 망자의 준비한 새옷을 들고 경충경충 뛰며 춤 추다가 가족들과 부들켜 안고 온다. 무당은 망자의 새옷을 입고 엄마라고 부르며 온다. 재가집은 망자에게 집을 잘 팔아달라고 부탁한다. 손자 망자는 억울하다며 통곡한다. 무당 둘이서 천을 찢어 버리고 찢은 천으로 의뢰인을 덮어주고 공수를 주고 춤을 춘다.
- ⑥ 대감 - 조무가 진행한다. 전안대감 영실대감이 먼저 온다. 철릭 쓰고 부채 들고 춤춘다. 술잔 뿌리다가 재가집에게 먹이고 공수 주다가 별비를 걷는다. 양반대감 판사대감이 와서 타령을 부르며 흥겹게 논다. 하직대감이 와서 망자의 새 옷을 들고 춤을 춘다가 공수를 준다. 몸주 직성대감이 와서 망자의 혼을 데리고 떠나간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 낫게 해준다고 공수를 준다. 부군대감이 와서 공수 주고 춤을 춘다.
- ⑦ 사재삼성 - 주무가 장고 앞에 와서 무가를 구송하다가 재가집 붙잡고 공수를 한다. 방울 들고 춤을 추다가 시왕 이름 하나 하나 부르고 사자돈 들고 공수를 준다. 천을 찢어 머리에 묶어 사자 복장을 하고 사자상에 차려진 음식을 한 입 베어 물고 던진다. 굿당으로 들어와 사자 흉내내며 별비 달라고 한다. 저승길 천도한다고 알리고 밖에 나가 북어 던져서 북어 머리 방향으로 확인하고 북어 머리를 꺾는다.
- ⑧ 말미 - 주무가 바리공주 무가를 구송한다. 말미상을 앞에 두고 장고를 세워 치며 큰머리를 엮고 무가를 구송한다. 그릇없이 상위에 쌀을 엮고 쌀위에 과자와 새발심지를 놓았다.
바리공주 일대기를 곧 바로 구송한다. 말미 끝에 가서 재가집이 새발심지에 불을 붙인다. 좌정하고 십대왕 부르고 그 뒤에 극락가기를 축원한다. 그 다음 쌀 위의 새발심지를 치우고 쌀의 무늬를 보고 영혼의 천도를 점친다. 얼굴 모양이 보이자 인도환생했다고 하고, 황새 발자국이 있자 손자는 새가 되었다고 한다.
- ⑨ 도량돌기 - 조무가 진행한다. 곧 바로 도량상을 차린다. 양쪽에 과일을 놓고 가운데에 뉘전을 엮은 조화를 놓았다. 무당은 한삼을 손에 끼고 큰머리를 엮고 장고 앞에 와서 무가를 구송한 후, 춤추며 도량상을 돈다. 한삼을 풀고 방울과 부채 들고 춤추고 칼을 던지면 맞은 편에서 다른 무당이 받는다. 각 방향에서 이를 4회 반복한다. 이는 죽은 이가 칼을 쓰고 있기에 그것을 벗겨 저승문을 여는 것이라 한다.
- ⑩ 베가르기 - 조무가 베를 허리에 묶고 명주, 베, 명주, 베 순으로 4차례에 걸쳐 가르기를 한다. 베를 쳐들고 있으면 밑으로 엮불하고 다니다가 찢는다. 시왕가

르기라고 하며 저승가는 길을 상징한다. 조무가 배를 들어야 하나 사람이 없어서 굿당에서 일하는 사람과 조사자가 들었다. 그러자 주무는 배를 든 사람에게 수고비를 조금 주라고 한다. 찢은 배와 낫전 들고 춤 추다가 낫전을 원위치 시킨다.

- ⑪ 상식 - 조무가 진행한다. 도량상 앞에 제사상 차리고 제사대로 절 두 번하고 삼시한다. 가족들은 차례로 뒷영실상에 상식을 올리고 차려진 제사상에 절을 한다. 악기가 장중하게 울린다.
- ⑫ 뒷영실 - 조무가 망자옷을 입고 아기 망자옷과 낫대를 들고 춤을 추다가 가족과 안고 울며 이별한다. 좋은 데로 갑니다. 하며 춤추고 망자 옷을 벗어 던진다. 가족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굿당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이제는 울지 않아야 한다는 무당 말처럼 울지 않고 사라진다.
- ⑬ 뒷전- 뒷전은 간략하게 장구만 치고 만다. 원래 뒷전도 12거리를 하나 이날은 간략하게 행하였다. 뒷전이 끝난 후 굿에 들어온 별비를 나눈다. 굿을 조사한 조사자에게도 수고했다고 인사를 한다. 악사는 떠나가고 조사자들도 가라고 한다. 뒷전은 간략하게 장구만 몇 번 치고 만다고 한다.

이날 행해진 굿은 시간상으로 보아 모든 격식을 제대로 갖춘 굿은 아니다. 그러나 말미거리에서 <바리공주>가 제대로 구송되었고, 영실 거리에서 가족과 망자의 만남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굿의 본래 목적에는 비교적 충실하게 부합한 면이 있다. 특히 굿을 주재한 무당들이 조사자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굿의 기본적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애를 썼고, 뒷전에서 12거리가 행해지지 않는 것만 서울 지역의 기본적인 오구굿이라 할만하다. 따라서 이날 조사한 자료를 서울 오구굿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¹³⁾

2) 재가집의 특성

이날 굿을 의뢰한 이는 신딸 유복연의 오랜 단골이다. 집안의 대소사를 항상 유복연과 상의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점에서 재가집은 독실한 무속 숭배자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전통적인 사고관의 소유자라는 의미로서 비현실과 현실의 통로인 굿판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망자는 재가집의 딸로서 젊은 나이에 그것도 어린

13) 그 동안 관찰한 서울 오구굿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말미거리에서 <바리공주> 무가가 격식을 갖추어 제대로 구송되지 않는다. 구송한다고 해도 간략화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바리공주>와 비교할 때 구송 시간이 매우 짧다. 둘째, 사자거리의 간략화와 영실거리의 간소화가 보인다. 셋째,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무당들이 애를 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양상을 고려할 때 이날 행한 굿은 이러한 양상에서는 조금 예외적이고 그래서 자료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외손자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 재가집에 큰 충격을 준 존재이다.

재가집과의 문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아들을 딸보다 선호한 재가집은 어린 시절에도 아들에 대한 편애가 심한 편이었다고 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러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딸이 죽음을 당하자 그동안 자신이 딸에게 한 여러 가지 행동이 후회의 감정과 함께 북받쳐 올랐고 이러한 것은 고통을 행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젊어서는 별로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사후세계에 가서 자신이 행한 생전의 여러 행적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재가집의 생각은 사고로 죽은 딸이 저승에 가서 올바른 심판을 받지 못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오게 했고 이에 따라 단골 무당의 권유를 받아 굿판을 열게 된 것이다. 셋째, 삶에 대한 설움이 많이 쌓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가집은 평소 살아오면서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며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살기 어려운 것이라는 말을 했다.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피해를 당한 것 같기도 하며, 자신이 가진 억울함을 풀어볼 기회가 없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의식은 딸의 죽음과 함께 표면화되었고 그래서 굿판에서 굿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울었다. 재가집은 이를 자신의 설움 때문에 더 많이 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식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딸의 사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딸에게 쌓인 것을 풀어주어야 자신처럼 멎히고 쌓인 것이 없게 된다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러한 재가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날 벌어진 진진오귀굿은 영혼을 천도한다는 의미와 함께 재가집 자신이 가진 설움을 풀며 딸과 자신 사이에 맺힌 모든 설움이 풀리는 장소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에서 행해지는 오구굿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음 감안하면 이날 참가한 굿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오구굿에 비해 짧게 끝나겠지만 그 오구굿이 재가집에게 주는 효과만큼은 과거 오구굿과 버금갈 정도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굿판에서 보여준 재가집의 반응은 이러한 의식을 유감없이 나타낸다.

3) 거리 진행에 따른 재가집의 반응

각 거리가 진행될 때의 재가집의 반응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무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 비하여 재가집은 주로 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무당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

한다. 각각의 거리가 끝날 때마다 재가집과 면담을 하여 그들의 심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 ① 주당몰립 - 별다른 말 없이 앉아 있다. 아직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딸을 위한 오구굿판이 시작되었다는 느낌도 받지 못해 보인다.
- ② 부정 - 주무가 죽은 이들의 생년월일을 불러주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특히 외손자의 이름과 나이를 부를 때는 소리내어 흐느낀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음료수를 주어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격한 슬픔에 빠진다.
- ③ 가망 - 부정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울음이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나 아직 슬픔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 ④ 별상 - 재가집에게 다가온 무당이 상문을 벗겨 줄 때 억지로나마 마음을 되잡는다. 대담 과정에서 죽은 딸의 상문이 잘 벗겨져서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음을 잡았다고 했다.
- ⑤ 영실 - 오구굿판에서 재가집의 걱정이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다. 쓰러졌던 무당을 여러 사람이 일으켜 세우자 무당의 입에서는 망자의 말이 나오고 무당을 꺼안고 소리내어 운다. 말을 하려고 하지만 설움이 차서 올라 말을 잇지 못한다. 망자가 새 옷을 입고 엽마라고 부르자 비로소 아무개라며 딸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30여분간 무당과 재가집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는데 중간 중간에 울음으로 인해 대화가 끊기기도 한다.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고가 날 때 운전을 직접 한 딸에게 왜 운전을 직접 했느냐고 나무라기도 한다. 죽은 딸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자 모정의 절실함이다. 병원에 입원한 사위와 손녀의 안녕과 쾌유를 망자에게 부탁하고, 팔기 위해 내어놓은 딸이 살던 집이 잘 팔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대담을 통해 비록 무당이지만 망자를 만날 수 있었음에 안도감을 표현했다. 자신은 죽은 딸과 풀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막상 딸을 만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풀다는 것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음을 확인했다. 외손자의 혼을 부르기 위해 무당이 신발과 장난감을 들고 춤을 추자 다시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외손자의 혼백이 왔을 때 울음을 그치지만 딸의 혼백이 왔을 때보다는 슬픔을 잘 진정하지 못했다.
- ⑥ 대감 - 서서히 감정이 진정되기 시작한다. 일종의 안도감이 엿보인다. 하직 대감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잘 낫게 해주겠다고 하자 약간의 웃음까지 보인다. 감정이 걱정의 한 고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 ⑦ 사재삼성 - 막상 사자가 망자를 데리러 왔다고 하자 별다른 걱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사자가 여러 행동을 하자 약간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사자가 상으로 달려들려 하자 다른 무당과 함께 사자를 막는 시늉도 적극적으로 한다. 대담을 통해 이제 망자가 사자를 따라 저승으로 가야 함을 인정한다고 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 ⑧ 말미 - 바리공주 무가를 구송하는 동안에 조용히 앉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무

가가 구송되는 동안이 제법 길다고 밖으로 나가지만 재가집은 끝까지 앉아서 무가를 듣는다. 세발심지에 불을 붙여서 영혼의 천도를 점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심을 보인다. 바깥 다가앉아 무당의 설명을 듣고 두 사람이 인도환생했다고 하자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고 만족한 웃음을 보인다. 쌀에 보이는 얼굴 모양 무늬와 황새 발자국 무늬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조사자가 설명을 요구하자 무당보다 나서서 먼저 쌀에 나타난 무늬를 설명한다.

- ⑨ 도량돌기 - 엄숙한 표정으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 기분을 묻자 조금 좋아졌다고 답을 한다.
- ⑩ 베가르기 - 조무가 허리에 베를 묶고 가르는 동안에 옆에 서서 계속 치성을 드린다. 별비를 달라고 하면 베 위에 노자돈 조로 일정액을 얹어 준다.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대담을 통해 이제 진정으로 딸이 좋은 곳에 갔다는 확신을 얻었음을 확인했다.
- ⑪ 상식 - 엄숙한 표정으로 상식상이 차례지는 것을 본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며 안도의 표정을 나타낸다.
- ⑫ 뒷영실 - 가족과 작별을 한다는 무당의 말에 울음을 터트린다. 그러나 앞의 영실처럼 격한 울음은 아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표정을 보여 준다. 대담을 통해 이제는 딸의 죽음을 받아 들일 수 있음을, 딸이 좋은 데 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무당들이 이제는 울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웃음을 보이며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총총이 사라진다. 대담을 통해 후련하다는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재가집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 리	재가집의 감정 표현 방식	재가집과의 대담을 통한 확인
주당물림	없음	
부 정	울음이 점점 격해짐	딸의 이름 듣자 눈물이 나온다고 함
가 망	울음이 점점 가라 앓음	딸을 위해 웬지 진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함
별 상	없음	딸을 위해 상문을 잘 벗어야 한다고 생각
영 실	울음의 최고조에 이른 후 점차 진정되기 시작함	딸을 만나니 속이 후련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풀릴 것은 풀린다고 생각
대 감	울음의 소멸, 웃음의 시작	
사재삼성	담담하게 바라봄	딸이 저승에 가야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
말 미	적극적인 참여	딸의 내세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확인 후 안도
도량돌기	없음	
베가르기	적극적인 치성	딸이 이제는 좋은 데 갔음을 인정
상 식	없음	
뒷 영 실	울음의 반복 후 웃음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

부정과 가망에서 터진 울음은 영실 거리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비록 무당이지만 무당의 입을 통해 딸이 부르는 엄마 소리를 듣고, 외손자가 부르는 외할머니 소리를 들으며 재가집은 걱정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옆 사람이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다가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한다. 영실 거리는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간 거리이면서 동시에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리이다. 처음에 슬피 울던 재가집은 무당의 몸을 빌린 딸과 일상적인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딸의 죽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감 거리에서 웃음을 조금 보이기 시작한 재가집은 사재삼성에서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고,¹⁴⁾ 장편 서사무가 바리공주가 구송되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키며 계속 딸의 명복을 빌어준다. 세발심지에 불을 붙여 딸과 외손자의 내세를 확인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인하고 무당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좋다고 웃기도 한다. 이제는 딸의 죽음을 기정 사실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추스려 나가는 것이다. 베가르기에서는 저승길로 향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산 자와 죽은 자의 거리감을 확인한다. 뒷영실에서 이제 다시는 딸을 만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그렇게 슬픔만이 가득한 울음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안도감이 내재된 울음이고 무당

14) 실제로 사재삼성이 무당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다 한다. 그것은 익살을 떨며 보는 사람을 웃겨야 하기 때문이다. 조홍윤, 1999,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66쪽 참조.

의 당부에 따라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굿판을 떠나간다.

처음에 굿판에 참가할 때 미진한 마음을 가졌던 재가집은 영실 거리를 통해 본격적으로 굿판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감정을 드러낸다.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 급작스런 죽음으로 나누지 못했던 미련과 아쉬움을 달랜다. 대감 거리부터 웃음을 보이기 시작한 재가집은 말미, 도량돌기, 베가르기를 통해 죽음과 천도의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고 상식으로 마침내 죽은 이가 이승의 사람이 아닌 혼령으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가집의 반응을 통해 오구굿이 재가집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이 확인된다.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으로 인해 마음에 맺혀 있던 모정은 오구굿을 통해 딸을 간접적으로나마 한 번 만나고 마음에 맺힌 서러움과 슬픔은 풀리는 것이다.

4. 재가집의 관점에서 본 오구굿의 의미

이러한 재가집의 반응을 통해 오구굿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확인된다. 그것은 바로 산 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오구굿이 한다는 뜻이다. 갑작스러운 단절로 인한 슬픔은 비현실이 중심이 되는 굿판에서 오구굿을 통해 극복하고 나아가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금 추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렇게 망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오구굿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구굿이 가진 연극적인 구조로 인해 재가집이 얻는 위안을 더 크게 한다. 영실거리부터 뒷영실거리까지는 재가집을 위로하려는 한 편의 연극같은 구실을 하고 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재가집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켜 슬픔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영실 거리에서 재가집은 갑작스럽게 단절되었던 망자와의 인연을 다시 회복한다. 무당의 입을 통해 죽은 이를 만나는 것은 만남의 기쁨보다는 슬픔이어서 당장은 눈물이 쏟아지지만, 곧 일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 망자와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눈다. 죽은 이를 천도한다는 것이 재가집까지 적극적으로 굿판에 끌어들여 감정을 해소하는 장소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산 자와 죽은 자의 작별 의식이 시작된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작별의식은 저승 사자의 출현이다. 한국인이 만들어낸 전통적인 사고는 저승사자가 사람의 혼백을 저승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게 했고, 저승사자의 등장으로 인해 재가집은 마침내 망자가 저승으로 가야함을 인정하게 된다.

말미 거리를 통해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때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승이라는 개념이 <바리공주>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바리공주>의 여러 행적을 직접 들음으로써 죽음이 가지고 있는 안도감까지 느낀다.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던 망자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승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망자가 걸어가야 할 저승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할 <바리공주>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서천서역국을 다녀온 존재이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리공주>는 자식을 낳은 어머니라는 사실이다. 비록 부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이지만 <바리공주>는 여성으로서 삶의 완성을 이룬 존재이다. 지옥을 지나갈 때는 부모의 약수를 구해야 한다는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갇힌 영혼들을 구제해준 존재이다.¹⁵⁾ 이러한 인물인 <바리공주>가 저승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은 고향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망자의 사후 세계에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은 바리공주가 서천서역국에까지 가서 약수를 구해와 아버지를 살리고 그래서 저승으로 사람의 혼백을 인도하는 오구신이 되었다는 바리공주 이야기는 재가집으로 하여금 망자가 무사히 저승으로 천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린 존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바리공주는 망자를 기꺼이 저승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는 세발심지를 통해 망자의 극락왕생을 확인한다. 바리공주 무가가 구송되는 동안에 쌓아 놓은 쌀에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무늬가 생겨서 망자의 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와서 오구굿이 보여주는 연극의 효과는 완성된다. 죽음이라는 아픔이 망자를 만나게 하여 극복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망자가 저승으로 갔음을 보여줌으로써 오구굿의 효과는 배가되는 것이다.

이어서 베가르기가 시작되어 오구굿의 연극적인 효과를 더욱 고조시킨다. 베를 가르며 저승으로 망자의 혼을 인도하는 무당을 보면서 재가집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망자가 저승으로 완벽하게 천도했음을 인식한다. 베가르기 이후에 벌어지는 뒷영실은 일종의 덩갑은 역할을 한다. 저승으로 천도하고 말미상의 쌀을 통해 극락왕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혼은 다시 나타나 가족과 이별을 하고 완벽하게 죽음 의식은 끝나는 것이다.

재가집의 감정 변화는 이러한 오구굿의 연극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고향에 관객

15)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전 지역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망자의 혼령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으로 참가한 재가집은 영실거리에서 배우로 등장하고, 무당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리감을 가지고 참가했던 고향이 실상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할 장소임을 인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망자를 온전하게 천도시킨다. 죽은 사람을 위한 고향이 오구곳이지만 망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오구곳을 통하여 사람들이 얻는 안도감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망자를 극락으로 보냈다는 생각 때문이다. <바리공주>를 구송하여서 망자의 혼이 무사히 <바리공주>의 인도를 받으며 극락으로 갔다고 믿는다. 시왕포를 가름으로 인해 저승길이 활짝 열려 망자가 구원천도 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망자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게 하여 준다. 가족 구성원을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던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러한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오구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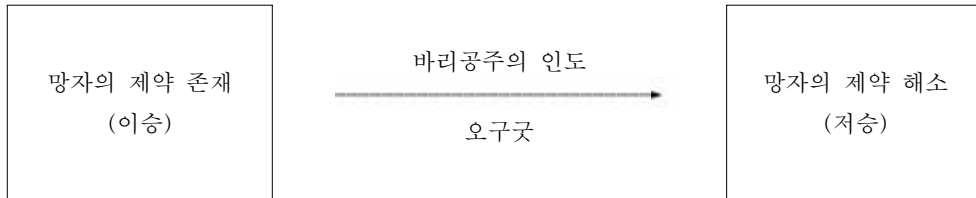
둘째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거리감을 확인시켜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가져와 죽은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간에는 죽은 사람의 혼이 이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기시한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오구곳을 통해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의 거리감이 확인되고,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이승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이다.

셋째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예고 없이 다가와 현실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이별하게 하는 죽음은 혈육의 죽음으로 인해 그 공포를 배가시킨다. 오구곳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죽음 저편의 세계가 결코 이승보다 못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쪽으로도 작용하여서 살아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¹⁶⁾

16) 이러한 오구곳은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연구 성과가 있다. 김인희, 1993, 『곳에서의 죽음의 교육적 의미』, 『한국의 곳 17-황해도 지노귀곳』, 서울 : 열화당, 112-116쪽.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구굿을 통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을 풀 수 있다. 오구굿에서 망자의 혼령이 무당을 통해 가족들에게 말을 할 때 굿판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린다. 처음에는 슬퍼서 울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설움 때문에 통곡하게 된다. 또한 무감을 서거나 무당들의 재담을 듣거나, 굿 장단에 맞추어서 신명을 내 뱀으로써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가슴의 한을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구굿의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망자와의 제약 내지는 불안감을 오구굿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무속의 기본 사고와 일치하고 있다. 무속에서는 존재의 영구 지속을 위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그 존재근원인 비일상세계(카오스)의 영원 쪽에서 존재를 보는 사고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원본사고라 한다.¹⁷⁾ 그것은 불가시적 영원존재인 카오스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카오스로부터 가시적 순간존재인 일상세계(코스모스)가 생겨났다고 믿는다. 가시적 순간존재의 근원을 불가시적 영원존재로 보기 때문에, 존재는 그 공간적 가시성의 지속과 단절의 문제일 뿐, 존재의 원질(原質) 자체는 영원한 것이어서, 그 공간성이 단절되면 존재의 근원인 카오스로 되돌아가 영원존재로 있게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존재의 근원을 카오스로 보아, 존재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코스모스에서 다시 카오스로 환원되어, 존재가 ‘카오스↔코스모스’의 순환체계 위에서 영원히 지속된다.¹⁸⁾

현실에서 존재한 여러가지 제약을 비현실계가 지배하는 오구굿을 통해서 사람들은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할 때 굿판은 일상세계인 코스모스에서 비일상세계인 카오스로의 연결 통로로 현실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약을 풀어주는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7) 김태곤, 1981, 『한국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157-160쪽.

18) 김태곤, 앞의 책, 159-161쪽.

5. 결론

이상에서 재가집의 관점에서 오구굿의 의미를 고찰했다. 이에 따라 오구굿판에 참가한 재가집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굿판에 개입하는가가 밝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구굿이 가진 의미가 재조명되었다. 죽은 이를 천도하는 망자천도굿은 다른 일반적인 굿과 달리 망자의 개입으로 인해 사각 관계를 보이며 진행된다. 굿판에 참가한 재가집의 감정 해소와 망자의 저승 천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

실제 오구굿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집의 반응을 검토한 결과 각 거리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임이 확인된다. 슬픔으로 시작된 오구굿은 영실 거리에서 무당을 통해 망자를 만남으로써 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망자와의 대화를 통해 쌓인 한과 원이 풀리기 시작한다. 사재삼성 거리, 말미 거리, 베가르기 거리를 통해 망자가 저승으로 천도했음을 확인한 재가집은 오구굿판을 감정 해소의 장소로 이용한다. 이러한 데에는 오구굿이 가진 연극적 구조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영실 거리에서 뒷영실 거리까지는 한편의 연극이라 할 만하다. 영실 거리에서 재가집은 망자를 만나면서 무대의 주연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을 해소하는 단서가 나타난다. 사재삼성 거리에서 저승사자가 출현함으로써 망자가 저승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재가집은 가지게 되고, 말미 거리에서는 바리공주의 인도로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세발심지를 통해 망자의 극락왕생이 확인되어 재가집은 미련을 떨칠 수 있게 되며, 베가르기와 뒷영실을 통해 작별과 천도 의식은 완벽하게 마무리 된다.

한국의 오구굿이 지금도 왕성하게 전승되는 이유는 오구굿이 가지고 있는 연극적인 구조와 함께 재가집으로 하여금 맺힌 감정을 충분히 풀게 한 오구굿의 진행 절차에 있다. 망자를 천도하여야 한다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산 자들의 마음을 다독겨 주는 기능을 오구굿은 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면에서 오구굿은 죽은 자와의 이별을 나타내는 슬픔의 행사라기보다는 산 자들의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축제라고도 할 수 있다. 죽음을 하나의 축제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원초적 사고가 깔려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비현실을 현실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원본사고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고는 연극의 구조를 좀 더 정밀하게 오구굿에 대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지 재가집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가집이 아닌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굿판에 참가한 무당이 배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더 정치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좀 더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집에 대한 분석도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 무속이 비합리적이고 배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

라, 중요한 우리의 문화 유산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넓어질 때 오구굿에 대한 연구 성과도 더 높은 지평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대진, 1988, 『바리데기 무가 연구』, 서울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회, 1993, 『굿에서의 죽음의 교육적 의미』, 『한국의 굿 17-황해도 지노귀굿』, 서울 : 열화당.
- 김태곤, 1982, 『한국무속도록』, 서울 : 집문당.
- _____, 1980, 『한국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 노영근, 1993,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서울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대석, 1980, 『바리공주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서울 : 문학사상사.
- 서울 새남굿 보존회, 1996, 『서울 새남굿 신가집』, 서울 : 문덕사.
- 이경하, 1997,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 서울 :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주, 1996, 『한국의 굿 2』, 서울 : 민속원.
- 이현숙, 1994, 『바리공주 무가 연구』, 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석환, 1991, 『바리공주 무가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주근, 1967, 『경기도 지역무속』, 서울 : 문화재관리국.
- 정병호, 1989, 『굿판에 표현된 한과 신명』, 『한국의 굿 14-통영오귀새남굿』, 서울 : 열화당.
- 조홍윤 외, 1993, 『한국의 굿 20-서울 진오기굿』, 서울 : 열화당.
- _____, 1997, 『무와 죽음』, 『한국 무의 세계』, 서울 : 민족사.
- _____, 1999,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차옥승, 1997, 『한국인의 종교 경험-무교』, 서울 : 서광사.
- 최길성, 1993, 『한국무속지 2』, 서울 : 아세아문화사.
- 최종성, 1995, 『진오귀굿 천도 제차의 연속성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홍태한, 1997, 『오구굿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보 8』, 서울 : 한국민속학회.
- 홍태한 외, 1997,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2』, 서울 : 민속원.
- _____, 1998,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서울 : 민속원.
- _____, 1999, 『서울 오구굿의 두 계통』, 『한국민속학 31』, 서울 : 민속학회.
- _____, 1999, 『오구굿과 심청굿을 통해 본 굿거리의 변화』, 『한국무속학 1』, 서울 : 한국무속학회 .
- 秋葉隆 외, 1992, 『조선무속의 연구』, 서울 : 동문선.

ABSTRACT

The Meaning of Ogu-Gut Observed by the Patron

Hong, Tea-Han(Kyunghee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Ogu gut observed by the patron.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know how the patron's family responds to the gut performance and how people participate in it. Unlike other types of gut, Mangjacheondo gut, praying for the souls of the departed, is performed in quadripartite relations because of the intervention of the deceased. Consoling the feeling of the patron and praying for the happiness of the dead in the other world have to be achieved.

As the responses of the patrons have been analyzed in the cases of Ogu gut, diverse responses were observed in each act. Ogu gut, beginning with the sorrow, reaches its climax when meeting the deceased through the shaman in the act of Yeongsil and their grudge and rancor begin to be dissolved by talking with the deceased. Confirming that the deceased has left this world in the acts of Sajaesamseong, Malmi, and Begareugi, the patron uses the gut to relieve stress. The theatrical structure of Ogu gut tremendously affects this process. From the Yeongsil act to the after-Yeongsil act, it is a kind of play. In the Yeongsil act, the patron becomes a leading actor and can cope with stress after meeting the deceased. In the act of Sajaesamseong, with the appearance of an envoy for the other world, the patron realizes that the deceased has to leave this world and in the act of Malmi, one can observe the deceased led to the other world accompanied by the Bari princess. In Sebalsimji, the patron is able to remove a lingering affection for the deceased who makes an easy passage into eternity and the rite of farewell concludes completely in the acts of Begareugi and after-Yeongsil.

Korean Ogu gut has been actively transmitted until now because it contains a theatrical structure and the patron can relieve a long-smoldering grudge in this process. It functions basically as praying for the happiness of the dead while consoling the heart of people involved. In some respect, it is a festival to relieve one's grudge rather than a sad activity of farewell for the deceased. Therefore, the basic idea of Koreans accepting

death as a festival lies here. Also, the unique idea of recognizing non-realities as realities is located.

中文提綱

从丧家的立场上看Ogu巫法的意义

洪泰漠(慶熙大学)

本文旨在研究Ogu巫法对于丧家的意义。本文所研究的内容主要是通过叙述做Ogu巫法的丧家在巫法过程中所作出的反映来研究Ogu巫法所具有的意义。引导亡灵的“亡者荐度巫法”与其它的巫法不同,由于有亡者的介入而呈现出一种4角关系。这种巫法同时具有两种目的:一是丧家在感情上的解脱,二是引导亡灵到阴间。

实际上在通过具体的Ogu巫法的事例研究丧家的反映时发现丧家在各个路上的反映是不同的。Ogu巫法一开始气氛就很悲伤,在Young-sil路上通过巫婆与亡灵相见时丧家的悲哀达到了顶峰。后来通过与亡灵的谈话,郁结在心中的哀怨被渐渐抒发出来。再后来通过Sa jae sam sung ge li, Mal mi ge li和 Begarigi ge li丧家们看到亡灵被引导到另一个世界,在这一过程中丧家得到了情感上的解脱。在这里Ogu巫法所具有的戏剧性的构造起了很大的作用。从Young-sil路到后Young-sil路的过程可以说是一场戏。在Young-sil路上丧家遇到亡灵,成了舞台上的主角,从而有了抒发感情的机会。在Sa jae sam sung ge li路上,黄泉狮子登场,丧家认识到亡灵要到另一个世界去。在Mal mi路上可以看到由巴利(音)公主牵引着去往黄泉的亡灵的样子。通过Se bal xim ji可以确认亡灵已经到了极乐世界投生,因此丧家可以抛掉迷恋。最后通过Begarigi ge li和后Young-sil,告别和荐度的仪式就完全结束了。

今天之所以Ogu巫法依旧在韩国很盛行是因为Ogu巫法所具有的戏剧性的构造以及其能够帮助丧家抒发感情的作用。Ogu巫法既起了超度亡灵的作用有使丧家能够充分发泄悲伤的感情。在某种角度上来看与其说Ogu巫法是与亡灵告别的仪式不如说是生者发泄情感的庆典。在这里是由把死看做庆典的韩国人的基本思考方式做基础的。并且作为这种思考方式的基础的正是把非现实看作现实之基础的思考方式。

日文抄録

クッ(祭り)の依頼者の観点から見た鬼(Ogu)クッの意味

洪泰漢(慶熙大学校非常勤講師)

この論文は、クッ依頼者(以下、依頼者と略する)の観点から鬼(Ogu)クッ(祭り)の意味を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鬼(Ogu)クッに参加した依頼者がどんな反応をみせ、クッに入り込むかを

あきらかにして鬼(Ogu)クッの意味を再照明することがこの論文の主な目的である。亡くなった人を導く亡者天道クッは、ほかの一般のクッと異なり、亡者の入り込みによって四角関係で進む。クッに参加した依頼者の感情の解消と亡者の彼の世への導きが同時に行うという目的をもっている。

実際、鬼(Ogu)クッの事例を中心に依頼者の反応を検討した結果、各段階に多様な反応をみせることが確認できる。悲しみからはじまった鬼(Ogu)クッは霊室巨里で巫を通して亡者に会わせることで絶頂に至るようになり、亡者との対話を通して積もった恨みが溶け始まる。

死者三聖巨里、払い巨里、布の切り巨里を通して亡者が彼の世に導いたことを確かめた依頼者は鬼(Ogu)クッを感情解消の場所として用いた。そのようになったことには鬼(Ogu)クッの演劇的構造も相当な影響を与えた。霊室巨里からあとの霊室巨里までは一つの演劇といてよいくらいである。霊室巨里で依頼者は亡者に会い舞台の主演として登場するようになり感情を溶ける端緒がでてくる。死者三聖巨里では彼の世へと案内するものが出現することにより亡者は彼の世に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認識を依頼者はもつようになり、払い巨里ではバリ公主の案内で彼の世に行く亡者の姿を確かめることができる。三つに分かれた芯を通じて亡者の極楽往生が確認され、依頼者は未練を払うことができ、布の切りとあとの霊室を通じてわかれと導き儀式は完璧に終りを告ぐ。

韓国における鬼(Ogu)クッは今も旺盛に伝承される理由は、鬼(Ogu)クッがもっている演劇的な構造とともに依頼者を通して胸にこびりついている感情を充分に解けるようにした鬼(Ogu)クッのすずみにある。亡者を導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基本目的に充実しながらも、生きている人々の心を慰める機能を鬼(Ogu)クッは果たしているわけである。ある面では鬼(Ogu)クッはなくなった人との別を痛める行事であるよりは生きている人々の胸にこびりついている痛みを解けてくれる祝祭とでもいえる。それは死を一つの祝祭と受け取った韓国人の原初的思考が見られるのである。そしてそういう思考のそこには非現実を現実の基盤と認識する原本思考がある。